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사 ‘자기’ 습득*

정해권 · 서지혜 · 이선영**

Abstract

Jeong Haegwon, Suh Jihye, & Lee Sun-Young. 2017. 3. 31. **Acquisition of Korean reflexive *caki* by Chinese-speaking learners.** *Bilingual Research* 66, 159-18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quisition of the Korean reflexive ‘*caki*’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using a picture-sentence verification task. Korean and Chinese reflexives are different from the English reflexive ‘*-self*’ in that long distance binding interpretation is allowed (e.g., *Mary_i thinks that Susan_j likes herself_{i,j}*), whereas it is not in English (e.g., *Mary_i thinks that Susan_j likes herself_{i,j}*). However, the Korean reflexive ‘*caki*’ is different from the Chinese reflexive ‘*ziji*’ in terms of its preferred interpretation: long distance binding interpretation is more preferred to local binding in Korean, whereas it is the opposite in Chinese. This study focused on how Chinese learners of Korean understand ‘*caki*’ in Korean compared to Korean native speakers. The results of an experiment based on a picture-sentence verification task with 31 learners (13 intermediate and 18 advanced) and 30 native controls showed that learners accepted local binding interpretation about 70% of the time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general proficiency, whereas native speakers accepted it only 50% of the time. The results indicate the influence of L1 transfer. Othe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were also discussed such as length of learning and length of reside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reflexive(재귀사), logophor(인식사), local binding(국지 결속), long distance binding (장거리 결속), *caki*(자기), acquisition(습득), Chinese learners(중국인 학습자), length of residence(거주 기간)

* 논문은 교신저자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NRF-2016S1A5A2A01027338).

** 정해권: 제1저자, 서지혜: 공동저자, 이선영: 교신저자

1. 서론

외국인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복잡한 문장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특히 문장 안에 나타나는 요소가 처리하기 까다롭다면 어려움은 배가될 것이다. 이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재귀사인데,¹⁾ 이는 단지 문장 안에 어휘로 표시되지만 이와 연결되는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한국어 재귀사는 ‘저, 자기, 자신, 자기자신, 자체’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재귀사의 문법적 제약 및 특성에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오경숙 2016:132).

또한 재귀사의 처리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어와 상이한 한국어 재귀사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선영 2012:384, Yuan 1998:324-325). 예를 들어 중국어 재귀사 ‘自己(ziji)’는 ‘자기’ 등의 한국어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결속(long distance binding)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국지 결속(local binding)만 허용하는 영어 재귀사 *X-self*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사 습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어와 유사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영어권 학습자들보다 쉽게 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영어권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경우도 있으나(이금영 2016:231), 오히려 중국인 학습자가 영어권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결과도 보고되었다(김지혜 2010:82).

이처럼 그동안 여러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어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자신’ 등의 습득 및 처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관해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를 대표적인 재귀사로 본 연구가 있는가 하면(이선영 2012 등), 이를 인정하지 않고

1) 일반적으로 한국어 문법에서는 ‘재귀 대명사’라고 부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례에 따라 ‘재귀사’라 칭한다.

‘자신’을 대표적인 재귀사로 본 연구도 있었고(이금영 2016), ‘자신’에 대해 모어 화자가 국지 결속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다수 있으나(강범모 1998:183 등), 일부 연구는 장거리 결속에 90% 이상 응답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이금영 2016:225). 이처럼 의견들이 상반된 것은 재귀사 자체에 대해 아직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상이한 전제와 조건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영향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자기’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데(김인석 1994, 이선영 2012, 오경숙 2016 등),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 자기자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낸 재귀사이기 때문이다(제효봉 2011:260). 또한 한국어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자주 논의된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중국어 재귀사 ‘自己’가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유사하게 장거리 결속을 허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Huang 1982:331), 실제 처리에 있어서는 ‘자기’와는 달리 국지 결속을 더 선호하는 재귀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Liu 2009:20). 그간 연구들은 이론적으로 문장에 나타나는 예들을 토대로 유사한 항목이라고 보았으나 실제 화자들이 재귀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귀사의 이런 문법적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언식적(logophoric) 상황이므로²⁾ 이를 가장 간단한 문장 형식으로 제공하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재귀사 ‘자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습득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³⁾

2) 언식적 상황은 말이나 생각, 느낌 등을 보고하는 동사가 인용하는 내포절에 발생하는 요소가 선행사와 결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선행절과 연결되는 내포절의 대명사를 언식사(logophor)라 칭하는데, ‘답화 대용어’나 ‘심라-언급어’라 하기도 한다(Clements 1975:241, 박진호 2007:131).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용법이 이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3) Kim *et al.*(2009), Liu(2009), 이선영(2012) 등이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식적 상황을 그림-문장 검증과제를 사용하여 제시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자기’에 대한 언어학적 논의에 보다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재귀사

재귀사는 원래 두 참여자가 참여하는 타자 지향적(other-directed)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다시 단일 참여자로 지시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1a)의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종종 (1b)의 영어 재귀사 *herself*, (1c)의 중국어 재귀사 ‘自己’와 대응된다(박중우·안주호 2016 등). 한편 언식적 상황에서는 (2a)와 같이 내포절의 1~2인칭 대명사가 중의적이므로 (2b)의 언식사를 통해 대상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때, 언식사는 기본적으로 절 외부에 있는 선행사 주어와 결부되는 장거리 결속이 자연스러우며 ‘자기’가 이와 관련되어 쓰였다고 할 수 있다(정해권 2015:206).

- (1) a. Mary_i는 자기_i를 믿는다.
 b. Mary_i trusts **herself**.
 c. Mary_i 相信 自己_i.
 Mary 믿다 자기(재귀사)
- (2) a. 영희는 민호에게 내_{ij}가 너를 믿는다고 말했다.
 b. 영희는 민호에게 자기_{i/*j}가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귀적 상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다시 복잡한 해석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3a)와 같이 내포절의 ‘자기’가 절 내부의 명사와 연결되는 국지 결속뿐만 아니라 절 외부의 명사와도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⁴⁾ 이는 (3b)의 중국어 재귀사 ‘自己’도 마찬가지인데(Huang 1982: 331), (3c)의 영어 재귀사는 단지 국지 결속만 가능하다.

- (3) a. Mary_i는 [Susan_j-이 자기_{i/j}-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b. Mary_i 认为 [Susan_j 相信 自己_{i/j}].
 Mary 생각하다 Susan 믿다 자기(재귀사)
 c. Mary_i thinks that [Susan_j trusts herself_{i/j}].
 Mary 생각하다 Susan 믿다 자기(재귀사)

이런 차이는 언어학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Pica(1987:488-489)는 형태적 구성에서 따라 복합 재귀사 X^{max}는 국지적인 선행사와 결합하지만, 단일 형태소 재귀사 X⁰는 절 경계를 넘어 결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한국어 재귀사는 형태적 구성에 상관없이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고 중국어의 ‘自己’도 복합적이지만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므로 이런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4a)와 같이 한국어 재귀사 ‘자기’는 강조사(intensifier)로 쓰일 수 없으나 또 다른 재귀사 ‘자신’은 강조사로 쓰일 수 있는데, 이는 (4b)의 영어 재귀사 *herself*와 유사하다. 언어유형론적으로 재귀사는 각각 강조사와 인식사에서 발달한 것으로 구분되는데(Faltz 1977:244, 253, Kemmer 1993:197), 이로 인해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자신’ 및 영어 재귀사의 결속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와 비슷하게 장거리 결속을 허용하는 중국어 재귀사 ‘自己’

4) 결속 원리 A에 따르면(Chomsky 1981:188), (1a)의 ‘자기’는 재귀사로 문제가 없으나 (3a)는 이를 위반하고, 결속 원리 B에 의하면 ‘자기’를 대명사로 볼 수 있으나 다시 (1a)가 문제가 되는 양면성을 갖는다(엄홍준 2014:900).

는 또한 (4c)와 같이 강조사로도 쓰이는데 이 현상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와 비슷한 현상이다.

- (4) a. 나 {자신/*자기}이 요리한다.
b. Mary herself is cooking dinner.
c. Mary 自己 做饭.
Mary 강조사 요리하다

이처럼 재귀사를 보편적,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므로 이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입장이 피력되었는데, 예를 들어 국지 결속의 ‘자기’는 재귀사로 보고 장거리 결속의 ‘자기’는 언식사로 구별하는 것이다(허세문 2014:144). 이는 혼합된(mixed) 접근을 거부하고 중국어 재귀사 ‘自己’를 언식사로서의 ‘自己’와 대용사로서의 ‘自己’로 구분한 이분법적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Huang & Liu 2001:154).

하지만 이런 언어학적 논의나 말뭉치 연구는 실제로 재귀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강범모 1998:202).

2.2. 한국어와 중국어 재귀사의 처리 및 습득

한국어 재귀사 ‘자기’에 대한 처리 연구는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의 습득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많다(이선영 2012, Kim *et al.* 2009 등). 이는 언어에 대한 보편 문법의 입장에서 재귀사의 결속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2언어 습득에서도 매개변항 재설정이나 모어 전이의 요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White 2003:44).

한국어 모어 화자는 언식적 상황에서 ‘자기’의 선행 명사가 3-1인칭 어순(예, “그가 나에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일 때, 장거리 결속을 선호하

고 1-3인칭 어순(예, “내가 그에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에서는 국지 결속을 선호하였다(주금정 2015:405). 그런데 3인칭만 다루는 것이 보다 중립적이므로 그림-문장 판별 과제가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Kim *et al.* (2009:29)의 그림과 텍스트를 활용한 과제에서 모어 화자는 ‘자기’의 장거리 결속에 대해 93%로 정확하게 응답하였고 국지 결속에 대해서는 24%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림과 함께 텍스트가 아닌 음성을 이용한 과제에서는 모어 화자가 장거리 결속을 93~98%, 국지 결속을 40~50% 받아들였고(이선영 2012:393, 이선영 외 2017:241), 반응 시간에서는 장거리 결속이 국지 결속보다 지연된 처리를 보였다(이선영 외 2017:241).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유사한 언식적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재귀사 ‘자기’의 결속에 대해 장거리 결속을 주로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국지 결속에 대해서도 50%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자기’가 언식사에 가깝지만 재귀사로서의 기능도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중국어 재귀사 ‘自己’는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고 장거리 결속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재귀사에 대해 중국어권 학습자가 영어권 학습자보다 정확하게 응답한다는 결과가 종종 보고되었다(이금영 2016:226 등).

하지만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재귀사 ‘自己’도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처리가 단순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모어 화자는 (5)와 같은 재귀사 문장을 음성 자극으로 제시하고 반응 시간을 살핀 연구에서 점화어와 대상어 사이의 간격에 따라 이해에 차이가 있었다.

- (5) 老师告诉 记者要-尊重 自己{学生/新闻/印象}。
 선생 말하다 기자 필요-존중하다 자기 학생/신문/인상
 “선생님은 기자가 자기 {학생/신문/인상}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의 예문에서 대상어가 ‘学生’, ‘新闻’, ‘印象’인 경우에 각각 장거리 결속, 국지 결속, 중립적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접하여 ‘自己’와 대상어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에는 ‘自己’가 국지 결속일 때에 가장 빠른 처리를 보였으나 간격(‘~’로 표시)이 있을 경우(160ms)에는 장거리 결속일 때 더 빠르게 처리되었다(Liu 2009:11, 16). 이는 중국어의 ‘自己’가 국지 결속을 선호하는 재귀사이며 장거리 결속의 인식사 ‘自己’와 구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즉 중국어의 ‘自己’는 1단계에서 재귀사로 처리되지만 2단계에서는 인식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Liu 2009:22).

이와 같은 중국어 ‘自己’의 특징은 일차적으로 장거리 결속을 선호하는 한국어 ‘자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재귀사가 사용된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습득에 대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i)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자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 사이에 정확도의 차이가 있는가? 그 양상은 모어 화자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가?
- (ii)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자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 사이에 반응 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 양상은 모어 화자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가?
- (iii)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에 대한 습득은 한국어 숙달도,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과 관련이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재귀사 ‘자기’가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이 가능한 그림과 함께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참여자

본 실험에는 전체 61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31명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실험 집단이었으며, 30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통제 집단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두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언어 능력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집단인 중국인 학습자는 TOPIK 등급에 따라 4급과 5급은 중급으로, 6급은 고급으로 숙달도별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⁵⁾ 그룹별 참여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정보

집 단	숙달도	평균 나이	평균 한국 거주 기간	평균 학습 기간	참여자 수	성별	
						남	여
한국어 모어 화자	-	31.9세	-	-	30명	8명	22명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고급	25.8세	42.6개월	63개월	18명	4명	14명
	중급	24.5세	21 개월	29개월	13명	4명	9명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두 실험에 참가하는 시점에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평균 거주 기간이 33.6개월이었으며(중급 21개월, 고급 42.6개월), 대부분 성인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평균 학습 기간은 약 48.8개월(중급 29개월, 고급 63개월)이었다.

5)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3~4급을 중급, 5~6급을 고급으로 구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와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6급만 고급으로 분류하였다.

3.2. 실험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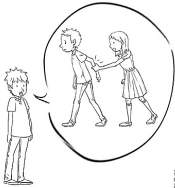

한국어의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림을 통해 문맥을 제시하고 음성으로 ‘자기’가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여 그림과 맞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자기’가 포함된 실험 문장 160문장과 그 외의 채움 문장으로 총 388개의 문장을 실험 재료를 사용하였다. 문장의 단어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거나 고빈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명사는 청각적 변별성이 높은 조사 ‘가’, ‘를’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였고, 동사는 비대칭성을 배제하기 위해 두 논항을 모두 유정 명사로 취할 수 있는 가역적인 타동사로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2> 실험용 단어

유정 명사 (n=20)	타동사 (n=20)
언니, 오빠 / 남자, 여자	잡다, 끝다 / 밟다, 보다
누나, 아이 / 아빠, 엄마	닦다, 씻다 / 그리다, 좋아하다
할머니, 할아버지 / 간호사, 의사	가리키다, 쓰다듬다 / 두드리다, 만지다
개, 돼지 / 사자, 호랑이	굽다, 물다 / 때리다, 치다
고양이, 개 / 원숭이, 토끼	뭍다, 조르다 / 꼬집다, 찌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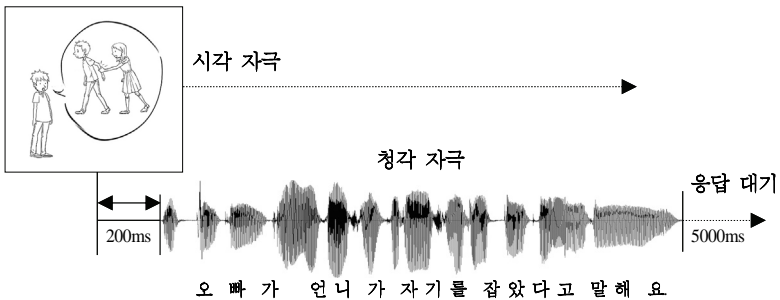
이상에서 선정된 10쌍의 유정 명사에 각각 2개의 동사를 배정하여 <표 3>과 같이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에 대한 정상문과 오류문을 조건별로 40문장씩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오빠’와 짝을 이룬 ‘언니’는 동사 ‘잡다’ 및 ‘끝다’와 문장을 구성하였는데 인식적 구조로 제시되었다. 문장만 제시된다면 어색할 수도 있겠으나 관련된 그림이 먼저 제시되어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게끔 하였다. 실험 문장은 채움 문장과 함께 무작위로 섞여 같은 조합 조건이 연달아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고, 명사쌍도 5문장 내에 동일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맞는 응답도 정상이나 오류가 3회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표 3> 실험 문장의 조건 예시

	장거리 결속	국지 결속
그림		
정상	오빠가 언니가 자기를 잡았다고 말해요.	오빠가 언니가 자기를 잡았다고 말해요.
오류	언니가 오빠가 자기를 잡았다고 말해요.	언니가 오빠가 자기를 잡았다고 말해요.

3.3. 실험 절차

먼저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을 화면상에 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하였고, 7개의 연습 문장을 통해 실험 과정을 익히게 하였다. 연습 후에는 모두 388문항이 제시되었는데, 실험 자극의 제시는 <그림 1>과 같이 먼저 그림이 화면에 보이고 곧이어 문장이 음성으로 제공되었다. 청각 자극 이후에 화면의 그림과 들은 문장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키보드에 ‘1’(일치) 또는 ‘0’(불일치)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림 1> 실험 자극의 제시

행동반응 실험은 E-Prime® 2.0으로 구현되었으며, 실험 참여자의 응답에서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분석하였다. 시각 자극은 400×400의 해상도로 흑백의 윤곽으로 나타낸 만화 형식이었으며, 1366×768의 해상도를 갖는 화면에 출력되었다. 모니터는 피험자의 전면에 설치되었으며, 조용한 공간에서 헤드셋을 통해 청각 자극을 청취하면서 키보드로 일치 여부를 입력하였다. 음성은 그림이 제시되고 200ms 후에 출력되었는데, 이는 먼저 제시된 그림속의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것이다. 음성 문장 이후에 5초간의 응답 입력 시간을 주었으며, 시간 내에 응답이 입력되지 않으면 실패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다. 이러한 실험 설계는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실제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에서 대부분 시각적 정보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청각적으로 들리는 문장을 예측하거나 이해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정해권, 이선영 2013: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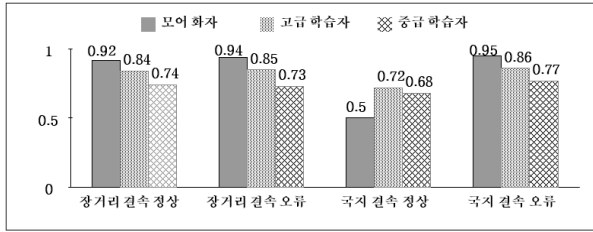
3.4. 실험 결과

3.4.1. 정확도

먼저 피험자의 응답에서 맞은 답은 1점을, 틀린 답은 0점을 부여하여 정확도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표 4> 집단 간 조건별 정확도

조 건	모어 화자(30명)		고급 학습자(18명)		중급 학습자(13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거리 결속 정상	0.92	0.12	0.84	0.10	0.74	0.17
장거리 결속 오류	0.94	0.05	0.85	0.12	0.73	0.20
국지 결속 정상	0.50	0.40	0.72	0.30	0.68	0.25
국지 결속 오류	0.95	0.04	0.86	0.12	0.77	0.16



<그림 2> 집단 간 조건별 정확도

SPSS 18.0K를 사용하여 반복측정 분할구획 요인분석(split plot factorial design)을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정확도가 ‘자기’가 사용된 각 조건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집단을 구획 변수로 하여 알아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5>에 보이듯이 집단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고($F(2, 58)=3.33, p<.05$), 개체 내 효과 검정도 Greenhouse-Geisser 결과에 따른 조건 효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283, 176.567)=16.84, p<.05$). 또한,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567, 175.283)=5.70, p<.05$).

<표 5> 집단에 따른 정확도 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p
개체 간	3.514	60			
집단	.362	2	.181	3.33	.043
오류	3.152	58	.64		
개체 내	9.171	177.85			
조건	1.791	1.283	1.396	16.84	.000
집단 * 조건	1.212	2.567	.472	5.698	.002
오류	6.168	174	.035		
총계	12.685	237.85			

먼저 집단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고급 학습자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급 학습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적으로 중급 학습자가 모어 화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고급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보다는 높고, 모어 화자보다는 낮았으나 각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조건 효과에 대하여 사후 분석한 결과에서 국지 결속 정상은 장거리 결속 정상, 장거리 결속 오류, 국지 결속 오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체적으로 다른 조건에 비해 국지 결속 정상 구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지 결속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장거리 결속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과 조건의 상호작용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사이에 각 조건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조건 간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집단별로 조건 간 단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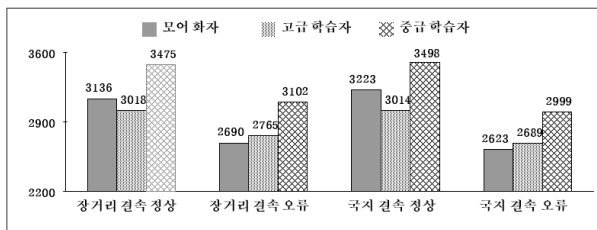
먼저 모어 화자의 조건별 차이는 정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54, 33.456)=28.629, p<.05$). 국지 결속 정상이 50%의 정확도로 장거리 결속 정상, 장거리 결속 오류, 국지 결속 오류 조건보다 낮았는데 이는 국지 결속을 맞지 않는 것으로, 즉 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 집단 모두 각 조건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F(1.426, 24.240)=2.594, p=.109$; $F(3, 36)=1.527, p=.224$).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달리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을 받아들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비슷하게 다 받아들인 것이다.

3.4.2. 반응 시간

각 집단과 조건별 반응 시간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그림 3>과 같다. 반응 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모어 화자의 4.98%, 중국어 학습자의 11.36%가 예외치(outlier)로 제외되었다.⁶⁾ 또한 오답인 경우도 제외하였다.

<표 6> 집단 간 조건별 반응 시간 (단위:ms)

조 건	모어 화자(30명)		고급 학습자(18명)		중급 학습자(13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장거리 결속 정상	3136.39	379.35	3018.01	574.78	3475.38	308.45
장거리 결속 오류	2690.20	549.06	2765.20	636.49	3102.61	738.61
국지 결속 정상	3223.07	570.94	3014.32	532.68	3498.97	347.22
국지 결속 오류	2623.02	543.89	2689.45	647.19	2999.06	622.06



<그림 3> 집단 간 조건별 반응 시간 (단위: ms)

반복측정 분할구획 요인분석에서 집단을 구획 변수로 한 반응 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F(2, 58)=2.96, p=.60$). 그러나 Greenhouse-Geisser에 따른 개체 내 효과 검정에서 조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785, 107.076)=40.13, p<.05$), 집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F(3.569, 107.076)=1.406, p=.241$).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7>과

6) 예외치는 $[Q_1-1.5 \times (Q_3-Q_1), Q_3+1.5 \times (Q_3-Q_1)]$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이런 반응 시간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같다.

<표 7> 집단 간 조건별 반응 시간 분석 결과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p
개체 간	60923535.93	60			
집단	5645631.91	2	2822815.95	2.96	.060
오류	55277904.02	58	953067.31		
개체 내	24184800.51	108.861			
조건	9614954.05	1.785	5387732.84	40.13	.000
집단 * 조건	673824.48	3.569	188788.54	1.406	.241
오류	13896021.98	103.507	134252.18		
총계	85108336.44	168.861			

사후 검증의 결과에서 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조건별 반응 시간에 서 정상문과 오류문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장거리 결속 오류가 참조 변인일 때,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의 정상문보다 오류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빨리 처리되었다. 이는 기존의 재귀사 처리 연구에서 발견한, 오류문이 정상문보다 빨리 처리된다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이선영 외 2017:241, 이선영 2013:338).

각 집단별 양상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집단별로 단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어 화자의 조건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F(1.658, 48.070)=29.800, p<.05$), 정상문이 오류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연되어 처리되었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경우도 반응 시간의 조건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F(1.366, 23.220)=10.074, p<.05$), 모어 화자와 유사하게 정상문과 오류문의 차이가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도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F(1.355, 16.256)=9.834, p<.05$), 그 차이는 단지 장거리 결속 정상문 국지 결속 오류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연된 것에서만 나타났다.

3.4.3. 학습자 변인의 상관관계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와 한국 내 거주 기간 또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정확도와 연관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숙달도에 대하여는 앞에서 집단(고급 학습자, 중급 학습자) 간의 분석에서도 알아보았으나 4~6급으로 보다 세분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Spearman의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숙달도, 정확도, 학습 기간의 상관관계(Spearman의 Rho)

	숙달도		장거리 결속 정상		국지 결속 정상		거주 기간		학습 기간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상관 계수	p
숙달도	-		.408*	.023	.132	.480	.209	.260	.556*	.001
장거리 결속 정상	.408*	.023	-		.343	.059	.122	.512	.377*	.037
국지 결속 정상	.132	.480	.343	.059	-		-.068	.717	.423*	.018
거주 기간	.209	.260	.122	.512	-.068	.717	-		.279	.128
학습 기간	.556*	.001	.377*	.037	.423*	.018	.279	.128	-	

* = $p < .05$

숙달도는 장거리 결속 정상의 정확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r=.408, p<.023$), 국지 결속 정상과는 그렇지 않았다($r=.132, p=.480$). 하지만 학습 기간은 장거리 결속 정상($r=.377, p<.05$) 및 국지 결속 정상($r=.423, p<.05$)의 정확도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거주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국지 결속 정상과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r=-.068, p=.717$). 이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학습 기간이 길수록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거리 결속이 높고 국지 결속을 낮은 모어 화자의 정확도와

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거주 기간과 국지 결속이 음의 상관관계 계수가 나온 것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모어 화자와 같이 국지 결속을 낮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습득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4. 토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의 습득에 대하여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통하여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정확도와 관련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재귀사 ‘자기’의 이해에 대한 정확도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모어 화자와 통계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중급 학습자는 정확도에서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재귀사 ‘자기’의 해석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데, 6급에서 85% 정도의 정확도까지 습득하였으나 4~5급은 70%대의 정확도를 보였다(모어 화자는 국지 결속 정상을 제외하고 92~95% 받아들였다). ‘자기’에 대한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의 이해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지 결속 정상에 대하여 모어 화자가 50%만 받아들인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각각 72%와 68% 받아들였다. 이는 그동안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어 ‘自己’와 한국어 ‘자기’를 유사한 항목으로 보아 온 것과 상이한 결과인데, 중국어 화자들이 ‘自己’를 우선 국지적 재귀사로 보고 다음 단계에서 장거리 인식사로 해석한다는 결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Liu 2009:22). 즉 중국어 ‘自己’와 한국어 ‘자기’가 모두 장거리 결속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근본적인 성격에는 차이가 있는데, 중국어 ‘自己’는 국지 결속이 일차적이지만 한국어 ‘자기’는 장거리 결속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국지 결속만 가능한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자기’의 국지 결속에 대해 70%의 정확도를 보인 것과도 유사한 것인

데(이선영 2012:393),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어 ‘自己’가 영어 재귀사와 마찬가지로 국지 결속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사한 습득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모어의 재귀사가 국지 결속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거리 결속을 선호하는 한국어에서 ‘자기’의 해석에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권 학습자나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예를 들어 “오빠가 언니가 자기를 잡았다고 말해요.”라는 문장에서 한국어 화자는 ‘자기’를 ‘오빠’로 해석하는 경향과는 달리 ‘언니’로 해석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반응 시간에 대해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재귀사 ‘자기’를 처리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지연된 처리를 보였으나 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정상문과 오류문 사이에서 오류문을 더 빠르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이다(이선영 외 2017:242).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 사이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는데,⁷⁾ 고급 학습자는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중급 학습자는 정상문과 오류문의 차이가 장거리 결속 정상과 국지 결속 오류 사이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급 학습자나 모어 화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앞의 정확도의 결과와 함께 비록 한국어 ‘자기’와 중국어 ‘自己’가 모두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을 다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선호하는 해석과 처리하는 기제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자기’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숙달도, 거주 기간 및 학습 기간이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에 대한

7) 다만 이 결과는 이선영 외(2017:242)와 다소 다른데, 이는 반응 시간을 분석하는 데 본 연구는 정답만을 포함하였으나 이전 연구는 정답과 오답을 모두 포함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해석에서 국지 결속이 숙달도 및 학습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장거리 결속을 선호하는 모어 화자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지 결속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숙달도와 학습 기간은 ‘자기’의 장거리 결속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거주 기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국지 결속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모어 화자처럼 국지 결속을 덜 받아들이는 것은 오랜 거주 기간을 통해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요인이 서로 다른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통하여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정확도가 낮았는데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인 정확도는 올라갔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국어 ‘자기’의 국지 결속 조건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50% 정도만 받아들인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70%나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어 모어의 전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중국어 재귀사 ‘自己’가 모두 장거리 결속과 국지 결속을 둘 다 허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지 결속이 선호되는 중국어 ‘自己’(Liu 2009: 22)의 영향으로 인해 국지 결속을 그만큼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어 ‘자기’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응 시간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지연된 반응을 보였

으나 그 양상은 비슷하였다. 둘 다 오류 문장을 정상 문장보다 빨리 처리하였고, 국지 결속과 장거리 결속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중국어 학습자의 ‘자기’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숙달도, 학습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알아보았는데, 숙달도와 학습 기간은 장거리 결속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거주 기간은 국지 결속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기’의 비대칭적인 장거리 결속 해석에 대한 선호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을 통해 일반적인 한국어 숙달도만을 높이는 것 이외에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한국어 입력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습득에 필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 강범모(1998). 문법과 언어 사용. <국어학> 31, 165쪽~204쪽.
- 김인석(1994). The L2 Acquisition of the Korean Reflexive Anaphor *Caki* by English-speaking College Students within the Framework of Universal Grammar. <응용 언어학> 7, 43쪽~72쪽.
- 김지혜(Ji Hye Kim)(2010). Interpretations of Korean Reflexive Binding by Late L2 Learners of Korean with English and Chinese L1. <언어와 정보> 14(1), 67쪽~91쪽.
- 박중우·안주호(2016). 한국어 ‘자기’와 중국어 ‘自己’의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76, 107쪽~130쪽.
-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115쪽~147쪽.
- 오경숙(2016). 한국어 재귀사 교육을 위한 문법 내용 연구: ‘자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5, 131쪽~152쪽.
- 엄홍준(2014).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속성. <언어> 39(4), 899쪽~919쪽.

- 이금영(Kum-Young Lee)(2016). On the Aspects of Reflexive Binding by Chinese and English Learners of Korean. <언어학연구> 40, 213쪽~237쪽.
- 이선영(Lee, Sun-Young)(2012). The Acquisition of Korean Reflexive *Caki* by Heritage Speakers and L2 Learners. <언어> 37(2), 383쪽~400쪽.
- 이선영(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처리 연구: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통하여. <이중언어학> 52, 317쪽~345쪽.
- 이선영·서지혜·정해권(2017).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처리 기제: 모어 화자의 반응 시간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74, 229쪽~248쪽.
- 제효봉(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표현 사용 양상 연구: ‘자기’, ‘자신’,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8, 257쪽~286쪽.
- 정해권(2015). 명사류 위계와 한국어 재귀 대명사: 강조와 인식적 표지의 통시적 발달. <언어와 언어학> 69, 189쪽~210쪽.
- 정해권·이선영(2013). 한국어 피동문 처리에서의 통사 구조와 빈도의 영향: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통한 행동 반응 연구. <언어와 언어학> 58, 403쪽~426쪽.
- 주금정(Kum Jeong Joo)(2015). Who is *Caki*?: Experimental studies regarding the person feature of the Korean reflexive *caki*. <언어와 정보 사회> 26, 385쪽~410쪽.
- 허세문(2014). 한국어 대용어 ‘자기’에 대한 비통합적 접근. <언어학> 70, 141쪽~178쪽.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lements, G.(1975). The Logophoric Pronoun in Ewe: Its Role in Discourse. *Journal of West African Languages* 2, 141-177.
- Faltz, L.(1985). *Reflexivization: A Study in Universal Syntax*. New York: Garland.
- Huang, C-T. J.(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Huang, C-T. J. & Liu, C-S. L.(2001). Logophoricity, attitudes, and *ziji* at the interface. *Long-distance reflexives*. eds. P. Cole, G. Hermon and C-T. J. Huang. Brill. 141-195.
- Kemmer, S.(1993). *The middle voice*. John Benjamins Publishing.
- Kim, J. H., Montrul, S. & Yoon, J.(2009). Binding interpretations of anaphors by Korean heritage speakers. *Language Acquisition* 16(1), 3-35.
- Liu, Z.(2009). The Cognitive Process of Chinese Reflexive Processing.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37(1), 1-27.
- Pica, P.(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Proceeding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17(2), 483-499.
- White, L.(200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Yuan, B.(1998). Interpretation of binding and orientation of the Chinese reflexive *ziji* by English and Japanese speakers. *Second Language Research* 14(4), 324-340.

정해권(Jeong Haegwon)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번호: 02-2173-2419

전자우편: haegwon@hufs.ac.kr

서지혜(Suh Jihye)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17035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외대로 81

전화번호: 031-330-4286

전자우편: suh.bwise@gmail.com

이선영(Lee Sun-Young)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번호: 02-2173-2367

전자우편: alohasylee@cufs.ac.kr

접수일자: 2017년 1월 3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3월 3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17일